

A3

반응소결법에 의해 엔진밸브형상으로 제조한 TiAl-Mn 금속간화합물의 특성 (Processing and Properties of Engine Valve-shaped TiAl-Mn Intermetallics by Reactive Sintering)

인하대학교 김영진, 현승균, 김목순*
인하공업전문대학 최문기

1. 서론

자동차의 고성능화와 연비개선 요구에 대하여 엔진부품, 특히 배기밸브와 같은 운동부품의 경량화와 내열성 향상이 주요한 대응책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최근, 종래의 밸브재료(내열강, Ni기 초합금)에 비해 약 반정도의 비중과 우수한 고온강도를 갖는 TiAl기 금속간화합물을 배기밸브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가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본 화합물을 자동차 엔진용 배기밸브에 실용화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재료성능의 확보는 물론, 본 재료의 약점인 난가공성을 극복할 수 있는 공업적 제조법의 확립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형상부여능이 우수하여 난가공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은 물론, 조성 및 조직제어가 용이한 반응소결법을 적용하여 TiAl-Mn기 금속간화합물을 제조하였다. 또한 이들 반응소결재의 기계적 특성, 고온내산화성 및 내마모성을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를 필요에 따라 용제법으로 제조한 TiAl-Mn 및 대표적인 밸브강인 STR35, STR11의 경우와 비교하였다.

2. 실험방법

입경 $149\mu\text{m}$ 이하의 Ti과 Al-Mn합금분말을 Ti-(43.5~47.5)at%Al-(1.6~1.7)at%Mn 조성이 되게끔 혼합한 다음, Al캔에 장입하여 진공탈가스처리후 봉입하였다. 그후, 400°C에서 열간압출하여 단조소재를 제작하고, 실온에서 형단조를 통하여 밸브형상의 혼합체로 성형하였다. 성형체의 표면을 면삭한 후, HIP중에서 반응소결을 행하였는데, HIP은 1300°C/ 2h/ 150MPa의 유지조건으로 실시하였다. Ti-45at%Al-1.6at%Mn 조성을 갖는 반응소결재의 일부를 플라즈마 아크 용해하여 보턴형상의 용제재를 얻었다. 아울러, STR35 및 STR11 조성을 갖는 시판의 배기밸브를 구입하여 비교재로 사용하였다.

반응소결재에 대해서는 실온 및 800°C의 대기중에서 인장시험을 실시하였다. 반응소결재, 용제재 및 STR35를 산화시편으로 가공하여 800, 900, 950 및 1000°C의 대기중에서 24시간동안 등온산화시험을 행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600시간까지의 장시간 산화시험도 실시하였다. 또한, 반응소결재에 산화에 의한 표면처리를 실시하여 건식마모시험을 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무처리재와 고주파소입한 STR11의 경우와 비교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 (1) HIP을 이용한 반응소결에 의해, 치밀하고 균질한 조직을 갖는 자동차 엔진밸브형상의 TiAl-Mn기 금속간화합물을 얻을 수 있었다.
- (2) 인장시험결과, Ti-45at%Al-1.6at%Mn 조성의 반응소결재가 실온 및 800°C에서 만족할 만한 강도와 연성을 나타내었다.

- (3) 24시간동안 산화시험을 행한 결과, Ti-45at%Al-1.6at%Mn 용제재는 온도상승에 따라 산화증량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반응소결재는 전 시험온도영역에서 극히 낮은 산화증량값을 유지하고 있어 반응소결재의 내산화성이 우수함이 판명되었다. 또한, STR35의 내산화성은 900°C 이상의 온도 영역에서 용제재에 비해 우수하였으나, 반응소결재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 (4) 800 및 900°C에서 600시간까지 실시한 장시간 산화시험에 있어서도 반응소결재의 내산화성이 STR35보다 우수하였는데, 이것은 반응소결재의 산화피막내에 형성된 연속적이고 치밀한 Al₂O₃층이 유효한 보호막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되었다.
- (5) 1000°C에서 24시간동안 산화처리를 실시한 반응소결재는 무처리재 및 고주파소입한 STR11에 비해 우수한 내마모성을 나타내었다.